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B 형



◆ 유의 사항

1. 답안 앞면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할 것.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4.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5.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6.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
7. 아래의 경우는 '0'점 처리함.
 - 양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 또는 연필로 작성한 경우.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 적색 펜이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B형)

[문항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가**와 **나**가 담고 있는 삶에 대한 성찰 내용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50 ± 50자)

가 네가 벌써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네가 대견스러웠다.
면허증은 무엇이나 따 두는 것이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네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 김광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고등학교 문학』 —

나 우리가 짐을 푼 곳은 삼천포항에서 조금 떨어진 ‘하이면(下二面)’이라는 이름의 해변 마을이었다. 보기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생각하기에 따라 그저 그럴 수도 있는 한적한 시골이다. 작은 학교가 있고 작은 우체국이 있고, 작은 농협이 있고, 작은 집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논과, 하늘과, 바다가 있다. 논은 지구의 일부였고, 하늘은 은하계의 일부였고, 바다는 태평양의 일부여서 — 학교와 우체국과, 농협과 집들은 더욱 작아 보인다. 아마도, 이곳의 지리를 측정한 사람은 그러한 시각의 차이에 꽤나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 즉, 인간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한순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을 이 마을은 지니고 있었다.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곤란하다.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소리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삼천포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해가 지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다. 즉 24시간 운영, 연중 무휴, 연장 근무, 불철주야, 철야 근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담배가 떨어진 조르바는 차를 몰아 30분 거리의 시내에서 담배를 사 왔고, <주종죽> 들은 게임의 금단 현상으로 밤새 손을 떨어야 했다. 첫날은 그런 이유로 모두가 일찍 잠들었다.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쿵쿨 잔다. 여러분이 잠든 이 시간에도 이웃 면에서는 다수확 신품종의 벼 모종 보급을 비밀리에 착수, 내년의 수확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면 어찌지요? 라고 물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선 이웃 면이 그 돈으로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농지형 테마파크를 국내 최초로 건립해 버리면 어찌지요? 라고 해봐야 그러거나 말거나다.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 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 글로 정리하고 보니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 같다.

삼천포에서의 일주일은 언제나 생생하다. 남일대 해수욕장(국내 최소 규모)에서 우리는 캐치볼과 러닝을 하고, 밤이면 맥주를 마시며 삼미 슈퍼스타즈의 시합 비디오를 보거나, 웃고 떠들거나, 자거나 했다. 언제나 새 치약을 꼭 눌렀을 때와 같은 기분의 시간이 우리의 주변에 흘러 넘쳤으므로, 우리의 시간은 그런 민트향이라든지, 박하향이라든지, 죽염 성분이 가미된 솔잎향으로 가득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도 그 일주일의 전지훈련에서 우리는 점점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즉 어떻게 달려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어떤 공을 골라야 할지, 어떤 공을 쳐야 할지를 어렵פות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어떤 코스를 만들어도 100미터가 나오지 않았다. 어렵쇼, 80미터도, 70미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브론토사우루스의 처남은 50미터의 직선 코스를 정해 50미터 달리를 실시했다. 실로 50미터도 빠듯한 백사장이었다. 첫 주자는 조르바였는데 조르바는 난데없이 “이봐,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왔다는 걸 아나?”라는 말을 하더니 그냥 백사장에 주저앉아 버렸다. 두 번째 주자는 브론토였는데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기록을 냈고, 세 번째는 눈이 큰 문하생이었는데 얼마나 운동 신경이 둔한지 마치 프라모델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줄줄이 <주종족> 들의 차례였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달리던 도중에 모두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은 안경잡이 괴소년이었는데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자세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동작으로 스타트를 한 다음, 19초의 기록으로 진지하게 끝냈다.

“전력으로 뛴 거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브론토의 처남이 물어보자 왜 못 믿느냐는 표정으로 안경을 까닥이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국 코치도 진이 빠졌고, 또 그 다음 주자는 조성훈이었는데 마침 똥을 누는 중이기도 해서 50미터 달리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모두가 말도 안되는 기록들의 탓을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신이 우리에게 부과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였다. 비록 윤희론자가 아닐지언정 나는 그 일주일의 어느 어귀쯤에서 — 지금의 삶이 무언가 본리그를 앞두고서 행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지훈련의 어느 어귀쯤에서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를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고, 남아 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공을 치고 던질 것인가와도 같은 문제였고, 어떤 야구를 할 것인가와도 같은 문제였다.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

— 박민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고등학교 문학』 —

다

문학은 우리에게 개인적 삶의 영역을 성찰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문학 작품은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을 꿈꾸거나, 혹은 부정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는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감동과 지적·도덕적 각성을 주어 왔다. 이와 같은 감동과 성찰은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고등학교 국어』 —

[문항 2]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가**의 ㉠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다**의 관점에서 **가**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750 ± 50자)

가

오늘날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해결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로 정치적 무관심증이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략)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방 자치 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30%대로 떨어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정치』 —

나

우리의 경제생활은 무수히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안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순편익을 산정하여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선택 기준 가운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순편익을 산정해야 한다. 또 각 대안마다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 이를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경제』 —

다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Bentham, J.)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 행위의 이유로 보고, 쾌락은 행복이요 고통은 불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의 주된 관심사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의 도덕과 법 제도 또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쾌락을 보장해 주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 원리의 과학적 적용을 위해 모든 쾌락과 고통에는 질적 차이란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계산법을 고안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